

2026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출제의도] 장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도(道)에 따르는 삶을 살려면 일체의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齊物(제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物我一體(물아일체)]에 이르도록 수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았다. 그중 하나는 인간만이 지닌 도덕적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형구(形驅)의 기호이다.

3. [출제의도]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계획 경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이자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고,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여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이 창조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라고 보았다. 한편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性即理(성즉리)]라고 보았고,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모두 통괄[心統性情(심통성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심즉리)]라고 보았고, 마음의 천리(天理)를 각 사물에 실현하면 그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사르트르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르트르는 자신의 행동과 결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자의 경험이므로,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평화에 대한 갈통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갈통의 주장이다. 갈통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 평화 상태로 보았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비의도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갈통은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폭력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맹자와 목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목자이다. 맹자는 무력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패도 정치에 반대하면서, 군주가 인의(仁義)의 덕으로 모범을 보이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잔혹하게 다스리면 그 군주는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자는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겸애(兼愛)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목자는 군주가 천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非攻)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칠정(七情)이 사단을 겸(兼)할 수 있지만,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는 모든 정(情)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기를 탄 것[氣發理乘(기발이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理發氣隨(이발기수)]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이와 이황은 공통적으로 이와 기는 서로 분리[離(리)]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는 무형(無形)하고 기는 유형(有形)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민주주의에 대한 슈페터와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슈페터, 을은 롤스이다.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고, 시민의 역할을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이 공적 심의라고 보았고, 통치의 정당성은 시민 간 대화와 토론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롤스는 민주 정치에서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칸트와 흄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을은 흄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선의 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흄은 어떤 대상을 향해 시인이나 부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쾌락이나 고통에 대한 전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칸트와 흄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선악 구별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지눌과 혜능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지눌, 을은 혜능이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았을지라도[頓悟(돈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나쁜 습기(習氣)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 정해를 지속적으로 함께 닦아야[定

慧雙修(정혜쌍수)] 한다고 보았다. 혜능은 자신의 본성을 단박에 깨닫게 되면 수행도 단박에 완성[頓悟頓修(돈오돈수)]되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플라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국가의 세 계층이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라톤은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에 충실할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여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때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 을은 동학의 최제우이다. 이항로는 성리학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 서양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제우는 모든 인간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시천주)]고 보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輔國安民(보국안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항로와 최제우는 공통적으로 외세 위협에 맞서 나라를 보위(保衛)하는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루소와 흄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루소, 을은 흄스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인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흄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를 결성할 가능성은 인간의 정념과 이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루소와 흄스는 공통적으로 사회 계약이 국가에게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노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인 덕을 비판하고,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예(禮)를 통해 천지 만물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하늘을 인의의 근원으로 보지 않았고, 성인(聖人)이 되려면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이상 사회에 대한 모어와 마르크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모어, 을은 마르크스이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하루 6시간 노동만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생산되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분배되어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며,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 한편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다.